

바이오니아, 공모청약에 8000억원 몰려

황우석 쇼크 이후 처음 실시된 바이오기업 바이오니아의 공모청약에 8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투자자들이 여전히 바이오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니아의 코스닥 상장 주간사인 대우증권은 12월21일 일반 공모청약 결과 배정물량 50만주에 모두 1억 4368만9403주의 청약이 접수돼 287.38대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접수된 일반청약 증거금은 8018억원으로 12월 공모 중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대우증권(40만주 배정)이 294.99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만주씩 배정된 공동 인수사별 경쟁률은 △교보 304.65대1 △우리투자 244.08대1 △한국투자 217.22대1 △한화 268.06대1 △현대 250.61대1을 기록했다.

바이오니아는 12월29일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12/23>